

설교후기도 설 교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의 큰 명절 설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올 한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의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찬송 559장 다 같 이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 기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후 교제 (새해 인사 및 덕담 나누기, 가족놀이)

신년감사예배는 낡은 해를 과거로 돌리고 새해를 여는 뜻깊은 예배입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류역사를 섭리하시고 지배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년에 낡은 시간을 폐기하고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년예배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해,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 지침

- 1) 가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둘러 앉습니다.
- 2) 가족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 3) 가족 가운데 어른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되, 서로 순서를 나누어서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2023년 설 가정예배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11:12)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이 즐겁고 희망찬 날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상의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 앙 고 백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송 28장 다 같 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 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기 도 가 족 대 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생사교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빌립보서 4장 6-7절 말 은 이

-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설 교 말 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 은 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로 부름 받은 우리도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 건강, 학업과 진로, 직장, 노년의 삶 등 우리를 염려케 하는 문제는 참으로 많습니다. 2023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지만 어제까지의 염려거리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염려케 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이런 염려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는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본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빌립보 성도들은 많은 염려 가운데 처해있습니다. 그들의 양육자요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스스로 서 잘 나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많은 염려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심령을 울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거리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찌 보면 대책 없고 무관심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합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모든 시간의 풍광 속에서 기필코 이뤄내신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이 처방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오히려 강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바로 그 분이, 우리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단순히 명하고 계십니다. 염려함 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갑시다.

둘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의 두 번째 처방은 기도입니다. 그것도 감사 가운데 아뢰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심령을 가득 적시고 있는 담대함의 비결을 발견합니다. 바로 감사로 가득찬 신뢰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신실함을 결코 저버린 적이 없으셨던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간다면, 우리에게 이미 감사로 적셔진 신뢰가 시작될 수 있음을 바울은 기억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염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미 시작된 완성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망각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루시기에 주저한 적도 결코 없으신 신실한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마음이 불안해지면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이 반드시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